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북한에 대한 함의 -

이기영(한국수출입은행 책임심사역)*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논문요약

본 논문은 ‘국제금융기구 가입 기관 수가 증가하면,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북한에 대한 함의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국제금융기구 가입 기관 수가 증가하면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가유형별로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FDI 순유입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온통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전 세계 200여 개국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정치체제, 체제전환, 소득수준, 경제자유도, 고채무빈국 이니셔티브에 따라 분류했을 때, 북한이 현재 해당하는 국가 유형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북한에서 정치경제적 제도나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국제금융기구 가입으로 단기간 내에 외국인투자 증대 효과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한계를 명확히 인식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며, 따라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효과에 대한 기대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북한,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구, FDI, 외국인직접투자

* 제1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본 논문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연구 결과를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논의와 관련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국제금융기구에는 대표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이 있다. 현재 IMF 및 세계은행(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기준) 회원국은 각각 190, 189개국으로(24.2월 기준)¹⁾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입 여부의 변별력이나 가입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이른바 마이크로 국가들과 함께 국제연합(UN) 회원국 중에서는 쿠바와 북한이 미가입 상태로,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영향, 특히 북한의 가입에 대한 함의를 연구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아직 진행형의 연구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1973년 세계보건기구(WHO) 가입을 시작으로 각종 국제기구 가입을 본격화했고, 1991년에는 우리나라와 동시에 UN에 가입했다. 현재 32개 국제기구에 가입한 상태이나(23.12월 기준)²⁾ 국제금융기구에는 단 하나도 가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아예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1990년대 말 IMF와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에 관심을 표명한 적이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IMF에서는 2000년과 2002년 북한을 IMF-IBRD 연차총회에 특별초청국(Special Guest)으로 초청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모두 무산되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개최되던 시기에도 북한의 IMF 및 세계은행 가입 논의가 대두된 바 있

1) IMF, "List of Members." <https://www.imf.org/external/np/sec/memdir/memdate.htm>(검색일:2024.2.9.); World Bank Group, "Member Countries." <https://www.worldbank.org/en/about/leadership/members>(검색일:2024.2.9.).

2) 외교부, 『2022년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외교백서)』, 서울: 외교부, 2023, pp. 280~285.

다.3) 또한, 북한의 IMF 가입이 언급되거나 통일 관련 논의가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4)

그렇다면,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효과는 무엇일까?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가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대표적으로 개발비용 차입을 들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국제금융기구에서 북한이 조달할 수 있는 개발비용을 추산하기도 했는데, 박석삼은 총 27-45억 달러5), 장형수는 연간 2-4억 달러6)로 예상하였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총지수를 반영하여 2022년 기준 금액으로 환산시 총 47-78억 달러, 연간 2.6-5.3억 달러 정도이다. 이는 세계은행의 2022년 회계연도 기준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파라과이 등에 지원 약정(commitment)한 수준이며7) 한국은행 추산 2022년 북한 GNI 284.1억 달러8)의 1.9% 정도를 차지한다.

장형수는 이처럼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가입으로 인해 주요 선진국으로부터의 원조는 물론 전 세계 민간자본 투자가 활발해지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게

-
- 3) 이선목, “美, 북한 비핵화 상응조치로 세계은행·IMF 가입 지원 가능성.” 『조선일보』 2019년 2월 8일.
- 4) 김영진, “‘북한 IMF, 세계은행 가입지지’...강부총리 홍콩총회 연설.” 『매일경제』 1997년 9월 24일, <https://www.mk.co.kr/news/all/1873269> (검색일:2024.9.7.); 홍제성, “류길재 “北 국제경제체제 편입 적극 돕겠다.” 『연합뉴스』 2013년 11월 20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60667?sid=100> (검색일:2023.10.3.); 청와대, “대통령 드레스덴 공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연설.” 보도자료 2014년 3월 28일; Ji Dagyum, “North Korea wants to join IMF and World Bank, pursue economic reform: Moon.” NK News, September 26, 2018, <https://www.nknews.org/2018/09/north-korea-wants-to-join-imf-and-world-bank-pursue-economic-reform-moon/> (검색일:2020.6.2.).
- 5) 박석삼,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차관 공여 가능 규모 추정』, 서울: 한국은행, 1999.
- 6) 장형수,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재원조달 방안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pp. 315~338.
- 7) World Bank Group Finances, “Open Financial Data.” <https://finances.worldbank.org>에서 저자가 직접 통계 추출(검색일:2024.2.9.).
- 8) 한국은행 북한경제자료, “북한 GDP 관련 통계.”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91> (검색일:2024.6.27.).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⁹⁾ 구소련 체제전환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역시 스스로의 기능을 외국인투자자에게 투자 대상국의 거시경제적 확실성을 제고시키는 ‘심리적 안정기제’라고 홍보해 왔다.¹⁰⁾

이런 배경에서, 본 논문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영향을 주는지, 국가유형별로는 그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한다. 이를 위해 전 세계 약 200개국을 대상으로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의 상관관계를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가입으로 얻게 될 효과를 간접적으로 예측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과 관련된 연구이고, 두번째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우선,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20여년 넘게 축적되었으나,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경제적 효과를 예측하는데 중점을 둔 연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시작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베트남과 중국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의 경우와 비교한 라이프 지거(Leipziger)¹¹⁾, 김성철¹²⁾의 연구를 언급할 수 있다. 그 이후 장형수¹³⁾, 조동호¹⁴⁾, 고재종¹⁵⁾, 최봉대¹⁶⁾ 등이 관련 연구를 이어 나갔으나

9) 장형수,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재원조달 방안을 중심으로.”

10) EBRD, *Transition report 1999: 10 years of transition*, London: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999, p. 11.

11) Leipziger, Danny M., “Thinking about the World Bank and North Korea.” Noland, Marcus, ed.,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8, pp. 201~219.

12) 김성철, 『국제금융기구와 사회주의 개혁·개방 중국·베트남 경험이 북한에 주는 함의』, 서울: 통일연구원, 2001.

해당 연구들은 모두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필요성, 북한이 가입 가능한 국제금융기구별 가입 선행 조건 및 가입 절차 또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방안 등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의 관련 연구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보우튼(Boughton)¹⁷⁾은 북한이 IMF에 가입을 시도했던 1990년대 후반의 사례를 소개한다. 조한승¹⁸⁾은 쿠바, 코소보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는데,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의 가입 의지가 강해야 하며 국제경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형수·박해식·박춘원¹⁹⁾은 북한의 개발재원 조달을 위한 한 방안으로 IMF, 세계은행, 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녹색기후기금(GCF)으로부터의 금융지원을 제시하며 각 기구에 가입하는 절차와 각 기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소개한다. 이한희·최동주²⁰⁾는 세계은행의 비공개 대북지원계획안²¹⁾을 입수하여 분석하는데, 동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

-
- 13) 장형수,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재원조달 방안을 중심으로.”
 - 14) 조동호,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가입 조건 및 혜택, 그리고 북한의 판단.” 『통일문제 연구』 통권 제50호, 2008, pp. 47~85.
 - 15) 고재중, “북한의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을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한 고찰: 범·경제 제도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0권 제1호, 2009, pp. 77~103.
 - 16) 최봉대, “북한 체제전환과 국제금융기구의 기술원조 방안.” 『현대북한연구』 제12권 제2호, 2009, pp. 136~196.
 - 17) Boughton, James M., *Tearing Down Wall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0-1999*, Washington D.C.: IMF, 2012.
 - 18) 조한승,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정치적 특수성: 쿠바, 코소보 사례와 북한에 대한 시사점.”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1호, 2015, pp. 109~131.
 - 19) 장형수 외, 『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 20) 이한희·최동주, “국제금융기구의 대북개발지원의 방향: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계획안 실증분석.” 『국제지역연구』 제23권 제2호, 2019, pp. 3~36.
 - 21) World Ban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rief Confidential Memo to President of James Wolfensohn on Future Development Assistance to DPRK*, The World Bank East Asia & Pacific Region, 2003; World Ban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rief Confidential Memo to President of Robert Zoellick on Future Development Assistance to DPRK*, The World Bank East Asia & Pacific Region, 2007; 이한희·최동주, “국제금융기구의 대북개발지원의 방향: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계획안 실증분석.” pp. 12~15에서 재인용.

에서는 향후 북핵 문제 타결시 동유럽 체제전환국 지원 경험을 벤치마킹 해서 북한을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및 구소련 국가의 IMF 및 세계은행 가입 사례 분석이 상당히 유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임반석²²⁾은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지원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외부적으로는 대미 관계 개선, 내부적으로는 경제상황 개선 및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라고 결론 짓는다.

이와 같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관련 연구들은 지난 20여년 간 유사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실상 모든 연구는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회귀분석으로 통해 검증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연구주제나 연구방법 면에서 차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드물게 찾을 수 있는데, 대부분 패널 데이터 분석과 같은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고 가입의 효과는 경제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연구되었다. 예를 들어, 부크만·드레허(Boockmann & Dreher)는 IMF와 세계은행 사업이 사업 대상국의 경제자유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세계은행 사업 수가 많은 나라일수록 경제자유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²³⁾ 또한, 이한희는 러시아와 폴란드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동유럽 체제전환국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IMF, 세계은행, EBRD, 3개 국제금융기구의 ‘조정(coordination)’ 역할이 FDI 유치에 기여했다고 주장한다.²⁴⁾

22) 임반석, “주요 MDB의 개도국 지원 사례로 본 북한 지원에 대한 시사점.” 『국제지역연구』 제27권 제3호, 2023, pp. 145~180.

23) Boockmann, Bernhard and Dreher Axel, “The Contribution of the IMF and the World Bank to Economic Freedom,” *ZEW (Zentrum für Europäische Wirtschaftsforschung) Discussion Papers*, No. 02-18, 2002.

국제기구 가입의 효과로 주제를 확장하면 관련 선행연구를 조금 더 발견할 수 있다. 국제기구 가입의 효과 역시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대표적으로, 드레허·보이트(Dreher & Voigt)는 국제기구 가입이 국가 신용도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검증했다. 특히 국제기구 가입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가입 이전 정치경제 상황이 취약했던 국가일수록, 가입 이후 국가 신용도 개선 효과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²⁵⁾ 다음으로, 드레허·미코슈·보이트(Dreher, Mikosch & Voigt)의 논문은 국제기구 가입이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해당 국가의 정치적 리스크가 낮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²⁶⁾ 한편, 발딩(Balding)은 국제경제기구 중 세계무역기구(WTO)에 신규 가입한 국가의 경우 수입보다는 수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연구했고²⁷⁾ 알레이·스칼레라(Allee & Scalera)는 WTO 가입 과정에서 국내 정책에 변화가 컸던 국가일수록 WTO 가입 이후 무역수지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²⁸⁾ 이 외에 애보트·스니달(Abbott & Snidal)도 국제기구 가입의 효과를 연구했지만,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해당 기구에서 제정한 규범이나 의무를 준수하게 됨으로써, 가입 국가가 내부적으로 수립한 개발 목표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⁹⁾

-
- 24) 이한희, "Three Essays on FDI Determinants of the Transition Economies in Eastern Europe and Implications to North Korea."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25) Dreher, Axel and Voigt Stefan, "Does Membership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rease Governments' Credibility? Testing the Effects of Delegating Power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9, Issue 3, 2011, pp. 326~348.
- 26) Dreher, Axel, et al., "Membership Has its Privileges - The Effect of Membership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FDI." *World Development*, Vol. 66, Issue C, 2015, pp. 346-358.
- 27) Balding, Christopher, "Join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hat is the Impact?"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8, Issue 1, 2010, pp. 193~206.
- 28) Allee, Todd L. and Scalera Jamie E., "The Divergent Effects of Join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rade Gains and the Rigors of WTO Access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6, No. 2, Spring 2012, pp. 243~276.
- 29) Abbott, Kenneth W. and Snidal Duncan, "Why States Act through Formal International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국제금융기구 또는 국제기구 가입이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적 효과는 경제자유도, 무역수지, FDI, 국가신용도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측정한다. 다만, 국제기구 가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IMF 등 개별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국제금융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전 세계의 국제금융기구들을 포괄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하며, 국제금융기구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FDI 유입 효과에 대해서 검증한다. 북한이 아직 IMF 등 모든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반적인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향후 북한의 가입에 대한 함의를 모색함으로써 해당 연구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다음 제2장에서 연구가설과 주요 변수를 설정하고, 제3장과 제 4장에서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북한에 대한 함의를 분석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관련 연구에서 경제적 효과로서 FDI 증가를 분석하는 점,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점, 그리고 개별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분석이 아닌 전 세계 국제금융기구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택한 점에서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범위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본다.

II. 연구 설계

1. 연구가설 및 분석모형

본 연구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이 FDI 증가와 같은

Organizations."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2, No. 1, 1998, pp. 3~3 2.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것인지 간접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전 세계 약 200개국에 대해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FDI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이를 회귀분석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FDI_t = \beta_0 + \beta_1 Membership_t + \epsilon_t$$

또한,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국제금융기구 가입 기관 수가 증가하면,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이 증가한다.

이러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투입될 주요 변수들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 분석자료

(1) 독립변수: 국제금융기구 가입(Membership)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이라고 명명하며, 드레허·미코슈·보이트의 연구³⁰⁾에서 차용한 방식으로 측정한다. 209개국에 대해 국가별로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수의 총합(‘22년 12월말 기준)을 구한 후, 이를 정규화한 수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가입 여부를 측정하는 대상 기관은 총 9개로 각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정의를 바탕으로³¹⁾ 국제금융기구를 국제통화기구, 다자개발은행, 기타 다자간 금융기구(녹색기후기금(GCF) 포함)로 구분하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금융기

30) Dreher, Axel, et al., “Membership Has its Privileges.”

31) 한국은행, 『국제금융기구』, 서울: 한국은행, 2018, p. 6;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 정보시스템, “국제금융기구 개요.” <https://ifimcoef.gokr/jb/organ/summary.do>(검색일: 2023.8.23.).

구에 한정하여 논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객관성 및 지역적 형평성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인정하는 다자개발금융기관³²⁾들을 대상으로 독립변수를 측정한다. 해당 다자개발기관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국제금융공사(IFC), 이슬람개발은행(IsDB), 유럽투자은행(EIB)이 포함된다.

<표 1> 독립변수(국제금융기구 가입) 측정에 포함되는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구 구분		소재지	설립연 도	회원국수 ('22.12 월 기준)
국제통화 기구	국제통화기금 (IMF)	미국 워싱턴D.C.	1944	190
	세계은행(WB) (국제금융공사, IFC)	미국 워싱턴D.C.	1944 (1956)	189 (186)
다자개발 은행	아시아개발은행 (ADB)	필리핀 마닐라	1966	68
	미주개발은행 (IDB)	미국 워싱턴D.C.	1959	48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영국 런던	1991	71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1964	82
기타 다자간 금융기구	녹색기후기금 (GCF)	대한민국 송도	2010	45
	이슬람개발은행 (IsDB)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1975	56
	유럽투자은행 (EIB)	룩셈부르크	1958	27

출처) 저자작성.

32) OECD,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and private sector development."
<https://www.oecd.org/development/development-finance-institutions-private-sector-development.htm>(검색일:2023.8.23.).

(2) 종속변수: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FDI)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이다. 외국인직접투자란 투자자의 경제와 다른 경제에서 운영 중인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지분(투표 주식의 10% 이상)을 얻기 위한 투자 유입으로, 자기자본(equity capital), 이익 재투자(reinvestment of earnings), 기타 자본(other capitals)의 합계이며, 순유입액은 신규 투자 유입액에서 투자 회수액을 제하여 산정한다. FDI 순유입액은 세계은행에서 매년 국가별 수치를 발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총 196개국에 대한 최근 10년(2012-2022년) 평균치를 10억 달러(USD Billion) 단위로 사용한다.

(3) 통제변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에 앞서, FDI 유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FDI 유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복잡다변하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통제변수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본 연구의 정확성과 유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FDI 유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연구들은 모두 정치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FDI 유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또한, 정부 정책이나 관련 제도의 수립도 긍정적 요인으로 본다. 우선, 루카스(Lucas)³³⁾를 들 수 있는데,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유입에는 투자대상국의 정치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레이엄·크루그만(Graham & Krugman)³⁴⁾의 연구 역시 투자대상국의 정치적 안정 그리고 정부의 효능을 뒷받침하는 제도 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싱·전광우(Singh & Jun)³⁵⁾는 개발도상국에 한정된 연구에서

33) Lucas, Robert E., "Why Doesn't Capital Flow From Rich to Poor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0, No. 2, 1990, pp. 92~95.

34) Graham, Edward M. and Krugman Paul 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1.

정치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산업 분쟁이 많은 국가는 FDI 유입이 감소하는 경향을 발견하였고, 정부의 수출지향 정책이 FDI 유입 증가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냈다. 최근 연구 중에서는 케차지아·메타사스(Kechagia & Metaxas)³⁶⁾의 연구가 FDI 유입에 있어 정치적 리스크 제거 및 정부의 관련 정책과 제도 수립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선행연구에서 국가위험도는 FDI 유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램샤란(Ramcharran)³⁷⁾은 국가위험도의 변화와 FDI 유입액의 증감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준원³⁸⁾은 FDI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각국의 소득수준과 시장규모,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국가위험도가 있음을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투레디(Turedi)³⁹⁾는 2002-2015년 기간 49개국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패지수와 국가위험도가 감소하면 FDI가 증가하는 경향을 밝혀냈다.

한편, 토빈·로즈-에커만(Tobin & Rose-Ackerman)⁴⁰⁾은 1984-2007년 기간 97개국의 FDI 유입을 분석한 결과, 국내적인 투자 환경과 제도가 조성되었다는 가정하에, 양자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체결하는 것이 FDI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드레

35) Singh, Harinder and Jun Kwang W., "Some New Evidence on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1531, 1995.

36) Kechagia, Polyxeni and Metaxas Theodore, "Sixty Years of FDI Empirical Research: Review, Comparison and Critique." *The Journal of Developing Areas*, Vol. 52, No. 1, 2018, pp. 169~1 81.

37) Ramcharran, Harri,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 analysis of regulatory and country risk factors." *American Business Review*, Vol. 18, Issue 2, 2000, pp. 1~8 .

38) 이준원,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39) Turedi, Salih, "The effect of Corruption and Country Risk on FDI Inflows: Empirical Evidence from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 and Administrative Studies (UI İİD -IJEAS)*, Vol. 21, 2018, pp. 151~1 72.

40) Tobin, Jennifer and Rose-Ackerman Susan, "When BITs have some bite: The political-economic environment for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The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Vol. 6, Issue 1, 2011, pp. 1~32.

허·미코슈·보이트⁴¹⁾는 1971-2005년 기간 약 100개국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제기구 가입이 FDI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정치적 리스크가 낮은 국가에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두 연구는 모두 인구, 1인당 GDP, 1인당 GDP 성장률, 무역개방도를 통제변수로 설정했다.

FDI 유입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제변수를 포함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의 회귀분석식은 다음과 같다.

$$FDI_i = \beta_0 + \beta_1 Membership_i + \beta_2 Population_i + \beta_3 GDPperCapitaGrowth_i + \beta_4 TradeOpenness_i + \beta_5 InvestmentFreedom_i + \beta_6 CountryRisk_i + \epsilon_i$$

또한, 각 통제변수에 대한 설명과 데이터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본 연구의 통제변수

통제변수	출 처	설 명
인구 (Population)	WB	국별 인구수. 백만(million) 단위 최근 10년(2013-2023) 평균치. 총 204개국.
1인당 GDP 성장률 (GDP per Capita Growth)	WB	국별 1인당 GDP 성장률. 최근 10년(2013-2023) 평균치. 총 201개국.
무역개방도 (Trade Openness)	WB	국별 GDP 대비 무역수지 비율(%). 최근 10년(2013-2023) 평균치. 총 183개국.
투자자유도 (Investment Freedom)	The Heritage Foundation	Index of Economic Freedom 평가지표 중 Investment Freedom 점수 사용. 국별 0-100 사이 점수를 부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투자 자유도가 높은 국가. 최근 4년(2021-2024) 평균치. 총 182개국.
국가위험도 (Country Risk)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EIU Operational Risk 사용. 국별 0-100 사이 점수를 부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은 국가. 최근 3년(2021-2023) 평균치. 총 180개국.

출처) 저자작성.

41) Dreher, Axel, et al., "Membership Has its Privileges."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결과 분석을 위해 SPSS의 오픈소스인 JAMOVl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주요 변수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했으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국제금융기구 가입’, 종속변수인 ‘FDI 순유입’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우선,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경우, 평균값이 0.336으로 나타나 209개국에 평균 3-4개의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6개국의 최근 10년 FDI 순유입액 평균은 약 99억 달러였으며, 마지막으로 <표 4>는 가설 검증에 사용되는 통제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다.

<표 3>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N
Membership			0.336	0.162	0.00	0.727	209
			6				9
FDI	Inflow,	USD	9.91	33.5	-11.4	337	196
(Net							6
Billion)							

〈표 4〉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N
Population (Million)	37.4	142	0.011	1396	204
GDP per Capita Growth (%)	1.45	2.38	-8.65	15.8	201
Trade Openness (%)	91.7	57.9	15.1	384	183
Investment Freedeom	55.7	21.9	0.00	95.0	182
Country Risk	46.6	18.2	10.6	85.7	180

2.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외국인직접투자

(1)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가설에 따라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FDI 순유입’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FDI 순유입에 대해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t=4.35$, $p<.001$)를 보였다. 즉, 한 국가가 더 많은 수의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수록 해당 국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모형의 설명력은 8.9%로 나타났다.

〈표 5〉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Estimate	SE	t	p	Stand. Estimate
Intercept	-13.3	5.81	-2.29	0.023	
Membership	65.8***	15.13	4.35	<.001	0.298

주1) $R^2=0.089$, Adjusted $R^2=0.0843$, $N=405$.

주2)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2)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FDI 순유입의 관계 분석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FDI 순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변수를 포함한 다중 선형회귀분석으로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독립변수와 함께 통제변수인 인구, 무역개방도, 1인당 GDP 성장률, 투자자유도, 국가 위험도를 투입한 것이다. 다른 변수들이 모두 통제되었을 때도 독립변수인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FDI 순유입’에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t=2.4567, p=0.015$)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 국가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기관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국가의 외국인직접 투자는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다. 통제변수를 포함한 본 모형의 설명력은 38.9%이며, 통제변수 중에서는 인구($t=7.2410, p<.001$)가 ‘FDI 순유입’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팽창요인(VIF)는 모두 10 이하로 본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의 관계 분석

	Estimate	SE	t	p	Stand. Estimate	VIF
Intercept	-1.6907	22.3023	-0.0758	0.940		
Membershi p	50.9908**	50.7554	2.4567	0.015	0.1927	1.46
Population GDP Per Capita	0.1169***	0.0161	7.2410	<.001	0.5161	1.23
Growth	-0.6498	1.1115	-0.5847	0.560	-0.0401	1.14
Trade Openness	-0.0297	0.0484	-0.6128	0.541	-0.0438	1.24
Investment Freedom	0.0942	0.1759	0.5355	0.593	0.0554	2.59
Country Risk	-0.3014	0.2265	-1.3311	0.185	-0.1437	2.82

주1) R2=0.389, Adjusted R2=0.364, N=1,355.

주2) **, ***는 각각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IV. 국가유형별 연구 결과

제3장에서 한 국가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기관 수가 증가할수록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가설을 보다 세분화된 추정 결과로 확인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원 회귀모형의 변수들을 국가유형별로 분류했을 때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 각 유형별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국가유형(Country Type)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OECD, NOECD), 정치체제(CA, EA, ED, LD), 체제전환국 여부(TRANS, NTRANS), 소득 수준(LIC, LMIC, UMIC, HIC), 경제자유도(MF, Mm, MU, R), 고채무빈국(HIPC, NHIPC)의 여섯 가지로 구분한다. 각 유형에서 분석하는 모형은 다음과 같다.

$$FDI_i = \beta_0 + \beta_1 Membership_i + \beta_2 CountryType_i + \beta_3 (Membership_i \times CountryType_i) + \epsilon_i$$

또한, 여섯 가지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재 북한이 해당하는 국가유형과 향후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가입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OECD 가입 여부로 구분하였다. OECD 회원국(OECD)은 38개국(‘24년 2월 기준)⁴²⁾, 비회원국(NOECD)은 171개국으로, 총 209개국에 대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비회원국이다. 결과는 <표 7>과 같다.

42) OECD, "Our Global Reach." <https://www.oecd.org/about/members-and-partners>(검색일:2024.2.12.).

〈표 7〉 선진국/개도국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FDI 순유입의 관계 분석 결과

	Estimate	SE	t	p	Stand. Estimate	VIF
Intercept	-5.59	7.47	-0.749	0.455		
OECD	61.32***	15.31	4.004	<.001	0.425	2.42
NOECD	36.11	23.62	1.529	0.128	0.162	2.42

주1) $R^2=0.101$, Adjusted $R^2=0.0921$, $N=823$.

주2)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분석 결과, OECD 회원국만 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t=4.004$, $p<.001$). 선진국의 경우 국제금융기구 가입 기관 수가 증가할수록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개발도상국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본 모형에 따르면, OECD 비회원국인 북한 역시 국제금융기구 가입으로 인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 효과는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정치체제

정치체제는 V-dem에서 발표하는 세계정치체제(Regimes of the World)에 따라 완전권위주의(CA: Closed Autocracy), 선거권위주의(EA: Electoral Autocracy), 선거민주주의(ED: Electoral Democracy), 자유민주주의(LD: Liberal Democracy)로 구분하였으며 ('22년 기준)⁴³⁾, 각각 30개국, 56개국, 58개국, 32개국, 총 176개국에

43) Herre, Bastian, "The 'Regimes of the World' data: how do researchers measure democracy?" December 2, 2021, <https://ourworldindata.org/regimes-of-the-world-data> (검색일:2024.2.9.); Lührmann, Anna, et al., "Regimes of the World (RoW): Opening New Avenues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Regimes." *Politics and Governance*, Vol. 6, No. 1, 2018, pp. 60~77; Coppedge, Michael, et al., *V-Dem [Country-Year] Dataset v13, Varieties of Democracy (V-Dem) Project*, 2023.

대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북한은 완전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정치체제별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FDI 순유입의 관계 분석 결과

	Estimate	SE	t	p	Stand. Estimate	VIF
Intercept	-10.6	9.11	-1.16	0.246		
CA	79.8**	31.49	2.54	0.012	0.285	2.42
EA	44.4	28.64	1.55	0.123	0.207	3.41
ED	43.5	26.62	1.63	0.104	0.217	3.40
LD	76.3***	18.55	4.11	<.001	0.478	2.59

주1) $R^2=0.125$, Adjusted $R^2=0.104$, $N=1,109$.

주2) **, ***는 각각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분석 결과, 완전권위주의(CA) 국가에서는 0.05 수준에서($t=2.54$, $p=0.012$), 자유민주주의(LD) 국가에서는 0.0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t=4.11$, $p<.001$). 반면, 선거권위주의(EA)와 선거민주주의(ED) 유형에서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억압적인 정치체제를 가진 완전권위주의(CA)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경제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금융기구에서 규정하는 투자자 보호 등을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서두에서 언급한 국제금융기구의 '심리적 안정기제' 역할이 통계적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완전권위주의(CA)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국제금융기구에는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본 모형의 분석 결과 선거권위주의(EA), 선거민주주의(ED) 정치체제에서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에 미치는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북한에서 정치체제의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국제금융기구 가입으로

인해 FDI가 증가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3. 체제전환국

체제전환국이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한 국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참고하여⁴⁴⁾ 표본의 수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체제전환국(TRANS: Transition country) 39개국, 비체제전환국(NTRANS: Non-Transition country) 168개국, 총 207개국을 대상으로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FDI 순유입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었다. 북한은 표본에 포함하지 않았다.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체제전환국/비체제전환국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FDI 순유입의 관계 분석 결과

	Estimate	SE	t	p	Stand. Estimate	VIF
Intercept	-13.8	5.95	-2.32	0.021		
TRANS	67.4***	20.11	3.35	<.001	0.312	1.83
NTRANS	66.8***	15.56	4.30	<.001	0.400	1.83

주1) R²=0.0894, Adjusted R²=0.0799, N=819.

주2)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체제전환국과 비체제전환국 모두 0.01 수준에서 본 연구의 가설에

44) IMF, "Transition Economies: An IMF Perspective on Progress and Prospects," *An IMF Issues Brief*, November 03, 2000, <https://www.imf.org/external/np/exr/ib/2000/110300.htm>(검색일:2024.2.9.) ; UN,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23*, New York: United Nations, 2023; Cook, Paul and Nixon Frederick, eds., *The Move to the Market: Trade and Industry Policy Reform in Transitional Economies*, London: Palgrave Macmillan, 1995.

대해 강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두 유형 모두에서 국제금융기구 가입 기관 수가 증가할수록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다만, 체제전환국($t=3.35$, $p<.001$)이 비체제전환국($t=4.30$, $p<.001$)에 비해 회귀계수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이 비체제전환국에서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체제전환국이 경제체제를 전환했다 하더라도,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에 이미 시장경제를 운영하던 국가들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체제전환 이후에도 정치적, 구조적, 제도적으로 불안정한 경우나, 경제구조나 투자환경의 충분한 개선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국제금융기구 가입 기관의 수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분석 결과를 통해 북한 역시 외국인직접투자를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국제금융기구 가입도 중요하지만 FDI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정치 및 경제적 환경의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함의를 발견할 수 있다.

4. 소득수준

본 유형에서 각국의 소득수준은 세계은행에서 구분하는 4개의 소득 그룹에 따라 분류했다.⁴⁵⁾ 고소득국(HIC) 70개국, 중고소득국(UMIC) 53개국, 중저소득국(LMIC) 54개국, 저소득국(LIC) 28개국으로(‘22년 7월 기준) 총 205개국을 대상으로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세계은행의 구분상 북한은 저소득국에 포함된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45) Hamadeh, Nada, et al., "New World Bank country classifications by income level: 2022-2023." July 01, 2022. <https://blogs.worldbank.org/opendata/new-world-bank-country-classifications-income-level-2022-2023> (검색일:2024.2.9).

〈표 10〉 소득수준별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FDI 순유입의 관계 분석 결과

	Estimate	SE	t	p	Stand. Estimate	VIF
Intercept	-7.41	6.90	-1.073	0.284		
HIC	62.38***	15.20	4.103	<.001	0.4398	2.47
UMIC	59.78**	24.18	2.472	0.014	0.2643	2.45
LMIC	30.53	24.09	1.267	0.207	0.1367	2.50
LIC	34.49	28.51	0.859	0.391	0.0810	1.91

주1) $R^2=0.115$, Adjusted $R^2=0.0960$, $N=1,225$.

주2) **, ***는 각각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소득수준별로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FDI 순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국(HIC)은 0.01 수준, 중고소득국(UMIC)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중저소득국(LMIC)과 저소득국(LIC)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소득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들의 경우에 국제금융기구 가입 기관 수가 증가할수록 외국인직접투자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은행의 구분상 북한은 저소득국(LIC)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서도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추정치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 바, 북한의 소득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이를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세계은행의 소득그룹 분류 방식에 따르면, 2021년 1인당 GNI가 1,085 달러 이하인 국가를 저소득국(LIC), 1,086-4,255 달러 사이인 국가를 중저소득국(LMIC)으로 분류하고 있다.⁴⁶⁾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1년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36.3조원, 1인당 GNI는 142.3만원으로, 달러로 환산시 총 GNI는 316.8억 달러, 1인

46) Hamadeh, Nada, et al., Ibid.

당 GNI는 1,243.0 달러 수준이다.⁴⁷⁾ 즉, 한국은행의 추정치에 따르면 북한은 저소득국(LIC)이 아닌 중저소득국(LMIC)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김석진·홍제환도 국제재산지수 산정 방식을 참고하여 추정된 결과 북한의 소득수준이 중저소득국(LMIC)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유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⁴⁸⁾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소득수준을 어떻게 예측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5. 경제자유도

경제자유도는 헤리티지 재단에서 제공하는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 따라 구분했다.⁴⁹⁾ 거의자유(Mostly Free, MF), 보통(Moderate, Mm), 부자유(Mostly Unfree, MU), 억압(Repressed, R)의 네 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23년 기준 각각 23개국, 68개국, 76개국, 15개국이다. 그 외에 완전자유(Free)로 구분된 국가는 스위스 단 1개국으로, 유형별 통계적 유의성 파악을 위해 편의상 거의자유(MF)에 포함하여 분석했다. 스위스까지 포함하여 분석대상은 총 183개국으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참고로 경제자유지수에서 북한의 경제자유도는 억압(R)으로 분류되어 있다.

47) 한국은행 북한경제자료, “북한 GDP 관련 통계.”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91> (검색일: 2024.2.9).

48) 김석진·홍제환, 『국제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서울: 통일연구원, 2019.

49) Heritage Foundation, *2023 Index of Economic Freedom*,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2023.

〈표 11〉 경제자유도별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FDI 순유입의 관계 분석 결과

	Estimate	SE	t	p	Stand. Estimate	VIF
Intercept	-18.4	7.53	-2.45	0.015		
MF	97.9***	18.13	5.40	<.001	0.526	1.95
Mm	65.6***	20.20	3.24	0.001	0.387	2.92
MU	79.7***	22.65	3.52	<.001	0.427	3.03
R	59.4*	35.62	1.67	0.097	0.147	1.59

주1) R²=0.148, Adjusted R²=0.128, N=1,137.

주2) *, ***는 10%,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FDI 순유입의 관계는 억압(R)을 제외한 거의자유(MF), 보통(Mm), 부자유(MU) 세 개 유형에서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자유도가 억압(R)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0.1 수준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모형의 분석 결과는 북한에서 경제체제의 구조적 변화와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는 경제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6. 고채무빈국

다음으로 고채무빈국(HIPC: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이니셔티브에 포함된 39개국(23년 1월 기준)⁵⁰⁾과 포함되지 않은 170개

50) IMF, "Debt Relief Under the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Initiative (HIPC)." <https://www.imf.org/en/About/Factsheets/Sheets/2023/Debt-relief-under-the-heavily-in>

국(NHIPC)으로 분류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수행했다(〈표 12〉 참고). 또한, IMF와 세계은행에서는 고소득국(HIC)에 대해서는 채무관리를 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소득국을(HIC) 제외하고 HIPC 39개국과 NHIPC 100개국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수행했다(〈표 13〉 참고). 고채무빈국 이니셔티브는 1996년 IMF와 세계은행 주도로 출범했는데, 빈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등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저소득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탕감해주고 있다. 〈표 12〉, 〈표 13〉에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2〉 고채무빈국/비고채무빈국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FDI 순유입의 관계 분석 결과

	Estimate	SE	t	p	Stand. Estimate	VIF
Intercept	-10.8	5.99	-1.80	0.073		
HIPC	35.1	24.09	1.46	0.147	0.137	1.89
NHIPC	63.8***	15.11	4.22	<.001	0.396	1.89

주1) R²=0.101, Adjusted R²=0.0921, N=823.

주2)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표 13〉 고채무빈국/비고채무빈국의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FDI 순유입의 관계 분석 결과(고소득국(HIC) 제외)

	Estimate	SE	t	p	Stand. Estimate	VIF
Intercept	-21.7	7.05	-3.08	0.002		
HIPC (HIC제외)	68.5***	23.73	2.89	0.005	0.470	3.98
NHIPC (HIC제외)	89.1***	21.51	4.14	<.001	0.675	3.98

주1) R²=0.127, Adjusted R²=0.114, N=551.

주2) ***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debted-poor-countries-initiative-HIPC(검색일:2024.2.9).

〈표 12〉를 보면,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외국인직접투자의 관계에서 고채무빈국들은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t=1.46$, $p=0.147$). 고채무빈국 이니셔티브 대상국들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고채무빈국(NHIPC)은 0.01수준에서 강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t=4.22$, $p<.001$).

고소득국(HIC)을 제외한 〈표 13〉 결과의 경우, 고채무빈국과 비고채무빈국 모두 0.01 수준에서 강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두 유형 모두에서 국제금융기구 가입 기관의 수가 증가할수록 외국인직접투자 유입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다만, 고채무빈국($t=2.89$, $p=0.005$)은 비고채무빈국($t=4.14$, $p<.001$)에 비해 통계적 경향성이 약했다.

고채무빈국 이니셔티브에 따라 채무재조정에 들어가는 국가는 IMF와 세계은행의 요구에 따라 지속가능한 정책 수정 및 개혁을 이행해야 하며, 이는 잠재적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고채무빈국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들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은 FDI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 근본적인 정책 변화 등이 수반될 때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아직 어떤 국제금융기구에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채무빈국 이니셔티브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채의 추정 수준은 39개 고채무빈국에 견주어봤을 때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OECD는 2002년까지 누적된 북한의 외채를 73억 달러 이상,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2019년까지 누적된 북한의 외채를 50억 달러로 보고 있다.⁵¹⁾ 이주영(Lee)은 북한의 외채가 최대 147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2018년 기준 북한의 GNI 대비 87%라고 분석하였다.⁵²⁾ 이는 39개 고채무빈국 중에서도 세 손가락에 드는 높은 수준이다. 북한이 향후 국제금융기구 가입

51) 최유정·한하린,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pp. 27~31, 36.

52) Lee, Jooyung, "An Estimation of North Korea's External Debt,"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1, 2023, pp. 97~124.

이후 고채무빈국 이니셔티브를 통해 채무 재조정을 받을 가능성과 필요성은 있어보이지만, 종합해볼 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제금융기구 가입 기관 수가 증가하면,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해보았다.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국제금융기구 가입 기관 수가 증가하면 외국인직접투자 순유입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가유형별로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FDI 순유입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온통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전 세계 200여 개국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정치체제, 체제 전환, 소득수준, 경제자유도, 고채무빈국 이니셔티브에 따라 분류했을 때, 북한이 현재 해당하는 국가 유형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웠다. 북한의 소득수준은 기관별로 다르게 추정하고 있지만, 낮은 수준이며, 본 연구의 분석에서 OECD 비회원국 및 세계은행 소득그룹 중 저소득국과 중저소득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국제금융기구 가입 기관 수가 증가해도 FDI 유입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북한의 정치체제가 현재의 ‘완전권위주의’에서 ‘선거권위주의’로, 나아가 ‘선거민주주의’ 수준으로 변화한다고 해도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따른 FDI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유도는 현재의 ‘억압’ 상태에서 적어도 한 단계 진화한 ‘거의억압’ 상태로 변화가 수반될 때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체제전환을 하더라도 정치경제적 제도나 환경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비체제전환국들만큼 국제금융기

구 가입의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본 논문을 통해 통계적으로 확인했다. 한편, 고채무빈국 이니셔티브 수혜 국가들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FDI 유입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수준의 외채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통해 FDI 유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막연히 당연하고 좋은 일이라는 인식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제금융기구 가입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면, 이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북한에서 정치경제적 제도나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국제금융기구 가입으로 단기간 내에 외국인투자 증대 효과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한계를 명확히 인식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며, 따라서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효과에 대한 기대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고재중, “북한의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을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한 고찰: 법·경제 제도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10권 제1호, 2009.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기구 정보시스템, “국제금융기구 개요.” <https://ifi.moef.go.kr/job/organ/summary.do>(검색일:2023.8.23.).
- 김석진·홍제환, 『국제비교를 통해 본 북한의 생활수준』, 서울: 통일연구원, 2019.
- 김성철, 『국제금융기구와 사회주의 개혁·개방 중국·베트남 경험이 북한에 주는 함의』,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김영진, ““북한 IMF 세계은행 가입지지”...강부총리 홍콩총회 연설.” 『매일경제』 1997년 9월 24일, <https://www.mk.co.kr/news/all/1873269>(검색일:2024.9.7.).
- 박석삼, 『국제금융기구의 대북 차관 공여 가능 규모 추정』, 서울: 한국은행, 1999.
- 이선목, “美, 북한 비핵화 상응조치로 세계은행·IMF 가입 지원 가능성.” 『조선일보』 2019년 2월 8일.
- 이준원,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이한희, “Three Essays on FDI Determinants of the Transition Economies in Eastern Europe and Implications to North Korea.”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한희·최동주, “국제금융기구의 대북개발지원의 방향: 국제금융기구의 대북지원 계획안 실증분석.” 『국제지역연구』 제23권 제2호, 2019.
- 임반석, “주요 MDB의 개도국 지원 사례로 본 북한 지원에 대한 시사점.” 『국제지역연구』 제27권 제3호, 2023.
- 외교부, 『2022년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외교백서)』, 서울: 외교부, 2023.
- 장형수,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재원조달 방안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 장형수 외, 『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 조동호,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가입 조건 및 혜택, 그리고 북한의 판단.”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0호, 2008.

- 조한승,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정치적 특수성: 쿠바, 코소보 사례와 북한에 대한 시사점.”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1호, 2015.
- 청와대, “대통령 드레스덴 공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연설.” 보도자료 2014년 3월 28일.
- 최유정·한하린,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 최봉대, “북한 체제전환과 국제금융기구의 기술원조 방안.” 『현대북한연구』 제12권 제2호, 2009.
- 한국은행, 『국제금융기구』, 서울: 한국은행, 2018.
- 한국은행 북한경제자료, “북한 GDP 관련 통계.”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91>(검색일:2024.2.9 및 2024.6.27.).
- 홍제성, “류길재 “北 국제경제체제 편입 적극 돕겠다.” 『연합뉴스』 2013년 11월 20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60667?sid=100>(검색일:2023.10.3.).
- Abbott, Kenneth W. and Snidal Duncan, “Why States Act through Form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2, No. 1, 1998.
- Allee, Todd L. and Scalera Jamie E., “The Divergent Effects of Join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rade Gains and the Rigors of WTO Access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66, No. 2, 2012.
- Balding, Christopher, “Join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hat is the Impact?” *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18, Issue 1, 2010.
- Boockmann, Bernhard and Dreher Axel, “The Contribution of the IMF and the World Bank to Economic Freedom.” ZEW (Zentrum für Europäische Wirtschaftsforschung) Discussion Papers, No. 02-18, 2002.
- Boughton, James M., *Tearing Down Wall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90-1999*, Washington D.C.: IMF, 2012.
- Cook, Paul and Nixon Frederick, eds., *The Move to the Market: Trade and Industry Policy Reform in Transitional Economies*, London: Palgrave Macmillan, 1995.

- Coppedge, Michael, et al., *V-Dem [Country-Year] Dataset v13*, Varieties of Democracy (V-Dem) Project, 2023, <https://www.v-dem.net/data/the-v-dem-dataset>(검색일:2024.2.9.).
- Dreher, Axel and Voigt Stefan, “Does Membership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rease Governments’ Credibility? Testing the Effects of Delegating Power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9, Issue 3, 2011.
- Dreher, Axel, et al., “Membership Has its Privileges - The Effect of Membership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FDI.” *World Development*, Vol. 66, Issue C, 2015.
- EBRD, *Transition report 1999: 10 years of transition*, London: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1999.
- Graham, Edward M. and Krugman Paul R.,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1.
- Heritage Foundation, *2023 Index of Economic Freedom*,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2023.
- Hamadeh, Nada, et al., “New World Bank country classifications by income level: 2022-2023.” July 01, 2022, <https://blogs.worldbank.org/opendata/new-world-bank-country-classifications-income-level-2022-2023>(검색일:2024.2.9.).
- Herre, Bastian, “The ‘Regimes of the World’ data: how do researchers measure democracy?” December 2, 2021,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regimes-of-the-world-data>(검색일:2024.2.9.).
- IMF, “List of Members.”, <https://www.imf.org/external/np/sec/memdir/memdate.htm>(검색일:2024.2.9.).
- _____, “Transition Economies: An IMF Perspective on Progress and Prospects.” *An IMF Issues Brief*, November 03, 2000, <https://www.imf.org/external/np/exr/ib/2000/110300.htm>(검색일:2024.2.9.).
- Kechagia, Polyxeni and Metaxas Theodore, “Sixty Years of FDI Empirical Research: Review, Comparison and Critique.” *The*

Journal of Developing Areas, Vol. 52, No. 1, 2018.

- Ji, Dagyum, "North Korea wants to join IMF and World Bank, pursue economic reform: Moon." *NK News*, September 26, 2018, <https://www.nknews.org/2018/09/north-korea-wants-to-join-imf-and-world-bank-pursue-economic-reform-moon/>(검색일:2020.6.2.).
- Lee, Jooyung, "An Estimation of North Korea's External Debt."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32, No. 1, 2023.
- Leipziger, Danny M., "Thinking about the World Bank and North Korea." Noland, Marcus, ed.,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8.
- Lucas, Robert E., "Why Doesn't Capital Flow From Rich to Poor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0, No. 2, 1990.
- Lührmann, Anna, et al., "Regimes of the World (RoW): Opening New Avenues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Regimes." *Politics and Governance*, Vol. 6, No. 1, 2018.
- Noland, Marcus, ed.,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8.
- OECD,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and private sector development.", <https://www.oecd.org/development/development-finance-institutions-private-sector-development.htm>(검색일:2023.8.23.).
- Ramcharran, Harri,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n analysis of regulatory and country risk factors." *American Business Review*, Vol. 18, Issue 2, 2000.
- Singh, Harinder and Jun Kwang W., "Some New Evidence on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1531, 1995.
- Tobin, Jennifer and Rose-Ackerman Susan, "When BITs have some bite: The political-economic environment for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The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Vol. 6, Issue 1, 2011.

Turedi, Salih, "The effect of Corruption and Country Risk on FDI Inflows: Empirical Evidence from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 and Administrative Studies (UIIJD-IJEAS)*, Vol. 21, 2018.

World Ban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rief* (Confidential Memo to President of James Wolfensohn on Future Development Assistance to DPRK),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East Asia & Pacific Region, 2003.

_____,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rief* (Confidential Memo to President of Robert Zoellick on Future Development Assistance to DPRK),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East Asia & Pacific Region, 2007.

World Bank Group, "Member Countries.", <https://www.worldbank.org/en/about/leadership/members>(검색일:2024.2.9.).

World Bank Group Finances, "Open Financial Data.", <https://finances.worldbank.org>(검색일:2024.2.9.).

UN,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23*, New York: United Nations, 2023.

Abstract

The Impact of Joining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Kee Young Lee(Senior Loan Officer, Korea Eximbank)
Moon Soo Yang(Professor,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conomic impact of joining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by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membership in such institution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flows through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statistically confirm that joining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generally tends to increase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refore, North Korea's accession to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s expected to send a positive signal to global investors. However, the correlation analysis of membership and FDI inflows by country types reveals that the bright prospects of North Korea's membership in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re not universal. When classifying countries based on political regime, transition countries, income levels, economic freedom, and the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Initiative, it becomes challenging to obtain results supporting the hypotheses of this paper within each category to which North Korea belongs to currently. This study recognizes the limitation that the anticipated economic effects of North Korea's membership in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may not materialize in the short term without fundamental changes in its political-economic institutions or environment. Consequently, expectations regarding North Korea's accession to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require a more cautious approach.

Keyword: North Korea,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투고일: 2024년 7월 7일, 심사일: 2024년 7월 22일, 게재확정일: 2024년 8월 26일